

벽 시놉시스

화실에서 성빈이 그림을 그리면서 옆에서 그림을 그리는 민서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성빈은 민서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던 중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에게 민서와 비교를 당한다.

성빈은 자기가 쳐다보던 여자애가 민서임을 알게 되고 화실로 향한다.

화실안에는 민서가 있었고 성빈은 민서에게 말을 건다.

민서는 성빈을 매우 친절하게 대했고 성빈은 그런 민서에게 호감이 생긴다 그 후 민서의 권유로 함께 미술 공모전을 나가기로 한다.

민서는 성빈보다 그림 실력이 뛰어나 성빈에게 도움을 주고 성빈은 민서에게 도움을 받으며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된다.

그러던 중 성빈은 엄마에게 미술을 포기하는게 어떻겠냐는 전화를 받는데 성빈은 이번 대회, 에서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한다.

결연해진 성빈은 상을 타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그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성빈을 민서가 원래처럼 도와주는데 자신에게 어려운 것을 쉽게 해내는 민서를 성빈은, 열등감을 느끼며 조금씩 질투하게 된다.

공모전이 끝난 후 성빈에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꿈을 포기한 주변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지, 만 성빈은 애써 외면한다.

공모전 결과가 나오고 민서는 대상을 탔지만 성빈은 아무런 상도 타지 못하게 된다

성빈은 자신이 그림을 포기해야 된다는걸 느끼고 자신의 모든 그림과 도구들을 버린다.

이때 민서가 성빈에게 오늘은 화실 안오냐고 말한다.

성빈은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돌아서서 화실로 향한다.

둘은 화실안에서 대화를 하다 성빈이 민서에게 미대에 대한 얘기를 꺼낸다.

민서가 미술은 취미라며 미대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성빈은 허무함을 느낀다

성빈은 미술실을 나가 교실로 향해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지금껏 자신이 그려온 그림들을 본다.

성빈은 그림들을 보면서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가 자신이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천천히 그려나가기 시작한다.

그림이 완성되고 성빈은 그림을 보며 만족한 웃음을 짓다가 결국 마지막이란 생각에 점점 표정이 굳게 된다.

성빈은 스스로 그림을 지우고 교실 밖으로 나간다